



국내은행 영업실적 악화의 원인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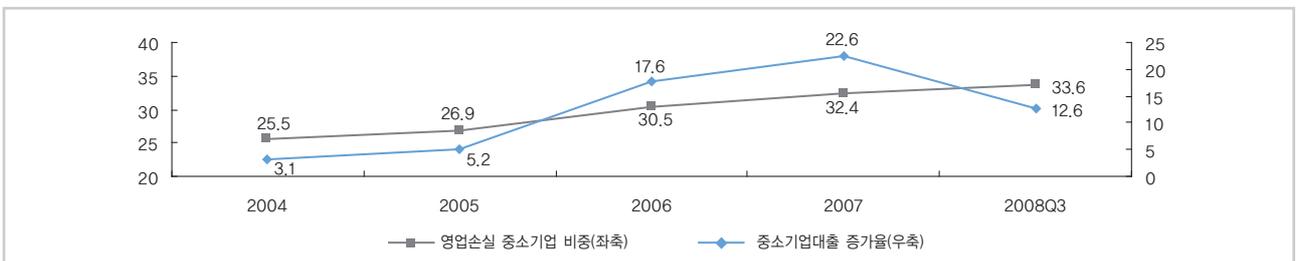
徐 丙 昊 (研究委員, 3705-6321)

최근 국내은행의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신용경색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국내은행 수익성 악화의 내부적 원인은 중소기업대출의 급격한 확대와 비이자이익 기반의 취약성인 것으로 분석되므로,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도입과 비이자 수익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에 따른 신용경색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영업실적 악화의 원인분석을 통해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금감원은 2008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7.9조원으로 전년(15.0조원) 대비 7.1조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추계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초래된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수익성이 악화된 은행이 대출을 확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내은행의 수익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함.
- 2008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7.1조원 감소한 데에는 부실여신 확대에 따른 5.4조원 규모의 총당금 전입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는데, 부실여신 확대는 국내은행의 급격한 중소기업대출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됨.
 - 국내은행은 2006~2007년 영업이익으로, 순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부실 중소기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대출을 급격하게 늘림.
 - 그 결과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불황과 수출부진 등으로 중소기업대출의 부실여신이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대규모 총당금 전입이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짐.

〈그림 1〉 영업손실 중소기업 비중¹⁾ 및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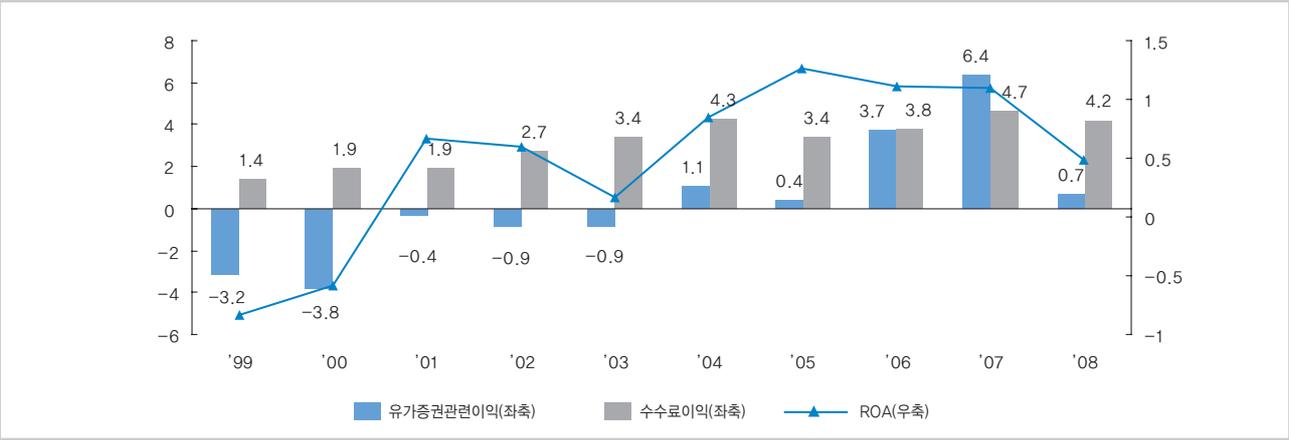
주 : 1) 영업이익이 순금융비용보다 작은 기업 자료 : 금감원, 한국은행



- 2008년 국내은행의 영업실적이 악화된 데에는 5.3조원 규모의 비이자이익 감소도 크게 작용했는데, 이는 수수료이익과 유가증권 관련이익 등 국내은행의 주요 비이자 수익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07년 6.4조원에 달하던 국내은행의 유가증권 관련이익은 2008년 0.7조원으로 급감했는데, 이는 유가증권 관련이익이 보유증권 매각 시 소멸되는 일회성인데다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임.
 - 한편 국내은행의 수수료이익은 동기간 4.7조원에서 4.2조원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수수료이익의 대부분인 방카슈랑스와 펀드상품이 저축성예금과 경쟁관계에 있는데다 경기순응성도 강하기 때문임.

<그림 2> 국내은행의 유가증권 관련이익¹⁾, 수수료이익²⁾, 총자산이익률²⁾ 추이

(단위 : 조원, %)



주 : 1) 1999~2003년은 영업외손익기준
 2) 2008년은 잠정치 기준
 자료 : 금감원, 『은행경영통계』

- 따라서 정부는 대출의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대손충당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은행의 비이자 수익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불황기에 국내은행의 대출확대 유인을 지나치게 억제할 경우 대출축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호황기에 대손충당금의 의무적 적립규모를 확대하여 대출확대를 억제하면서 불황기에는 동 적립규모를 낮추어 신용경색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국내은행 영업실적의 변동성이 큰 원인은 안정적 비이자 수익기반의 부재이므로,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등 투자관련 업무의 허용은 물론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지급결제 등 기본업무 관련 수수료 수익기반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KIF**